



풍경소리 담긴 급여명세

복직이 출·퇴근 도심 지하철. 잠시나마 발길을 묶어놓던 '풍경소리'의 글들이 이제는 육군 간부들과 만나게 된다. 육군경리단은 오는 6월부터 육군 부사관급 이상 간부와 군무원 등 10만여 명의 급여명세표에 (사)풍경소리의 지하철 계사판 글들을 심기로 했다. 3월 27일 밝혔다. 계사는 A4 용지의 급여명세표 뒷면이 활용되며,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자 그림·연꽃 문양 등의 디자인까지 곁들여진다.

이 같은 육군경리단의 결정은 간단하다. 일반인은 물론 군인들에게도 풍경소리의 글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아름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추진경위도 자발적이었다. 육군경리단 급여담당 실무자가 23일 풍경소리를 찾아와 지원여부를 문의했던 것이다. 또 일일이 글들을 읽고, 얼마만큼의 글을 지원할 수 있는지 상세히 물고 갔다.

풍경소리는 육군경리단의 문구사용 요청을 받고, 곧바로 수필·시·법구 등 총 100여 쪽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엽서와 포스터도 보내주기로 약속했다. 단 내건 지원 조건은 하나. 글의 출처를 밝혀 달라는 것뿐이었다. 그간 전국의 지하철과 철도 역사, 교도소·군부대·학교 등 다양한 생활현장에서 실천해온 풍경소리의 활자만 아름답고 여운 긴 '글 포교'가 또 다른 곳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풍경소리는 지난 2000년 창립한 불교계 비영리 포교·문화단체로, 특히 지하철 포교 게시판을 운영해 일반 시민들에게 '소리 없는 법음'을 전해주고 있다.

기대도 대단하다. 육군경리단 최후호 중위(퇴직보좌관)는 "처음에는 명세표 공간 활용차원에서 추진됐지만, 시인이 나오자 주위 반응이 좋았다"며 "봉급명세표를 받아 들고 빙그레 웃음 동료들을 생각하면, 실무자로서 설레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매달 받아보는 급여명세표. 늘 부족해 보이는 숫자들로 한숨 내쉬기 십상이지만, 아름다운 글들이 실린 명세표를 받아 보는 이들의 느낌은 어떨까?

김철우(취재1부 기자)

반전·상생서원 전국에 메아리

조계종 전국 소속 사찰서 평화캠페인 펼치기로



3월 2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틱낫한 스님과 불자들, 각 종교단체들이 '평화염원 걷기명상-STOP WAR' 행사를 가졌다.

파병반대, 평화의 등·현수막 달기운동

'반전평화불대위' 종전 때까지 걷기 시위

지구촌의 반전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평화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같은 염원은 불교계 일부 단체와 불자들이 중심으로 전개돼 온 반전 및 평화 촉구 시위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전국 단위 사찰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전쟁반대 호소문을 발표하고 중앙종회의원들이 파병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어, 종단차원의 평화 캠페인도 전개한다. 조계종은 미국-이라크 전쟁의

조속한 종단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평화 캠페인-평화와 상생을 위한 불자들의 서원'을 벌이기로 하고 3월 28일 전국 본말사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렸다. 평화 캠페인은 초하루법회, 보름법회 등에서 법회 시작 전 평화를 위한 타종을 한 다음 평화발원문 봉독, 평화법문 등 평화원행법회를 병행하고, 각 사찰마다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등'을 다는 것과 함께 평화를 염원하는 현수막을

사찰 입구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전개된다. 총무원장은 사찰에서 법회 시작 전 평화 기원 발원문을 이날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계사, 수원포교당, 남원실상사, 파주보광사 등 전국 대부분의 사찰들은 2일 초하루법회부터 본격적인 평화 캠페인에 들어간다.

또 사찰에서 발행하는 사보와 경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도 3월 20일 총무원에서 발표한 '평화 호소문'과 중앙종회에서 결의한 '평화 성명서'를 올리기로 하는 한편, 부처님 오신날 시청 앞 탑등의 이름도 '평화의 탑등'으로 결정해 지속적인 평화기원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13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 불교대책위는 지난 3월 27일부터 조계사 일대에서 '이라크 전쟁 종단과 파병반대를 위한 걷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시위는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정토회는 전쟁으로 인한 분노와 아픔을 나누기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를 반전평화기간으로 선포했다.

방한중인 틱낫한 스님과 불자들, 각 종교단체와 시민들도 3월 22일 시청앞 광장에서 '평화염원 걷기명상-STOP WAR' 행사를 갖고 평화를 염원했다.

출시하고, 불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에 들어갔다.

선물용 팔모등은 우리나라 고유 의 등인 팔모등을 10분 정도면 조립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서원지를 달아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적을 수 있도록 했으며, TV 위나 공부방, 침실 등에 놓고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가격은 3천원.

‘천성·북한산문제’ 총리실서 주관

조계종 중앙종회, 백지화 촉구 결의문 발표

북한산 관동도로와 천성산 고속철 문제가 국무총리 주관 하에 총리실에서 다루지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문제를 관계부처와 의논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불교계는 그동안 노선 백지화와 함께 이 문제를 총리실 주관으로 다루길 것을 요청해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뤄지게 돼 문제 해결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계종 공대위 김용구 간사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면서도 "기존 노선 백지화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쉬우며, 특히 북한산의 경우 5.6공구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8일 '지음스님과 조계사의 릴레이 단식을 적극 지지하며, 총무원 집행부는 대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즉각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내

용의 북한산, 금정산 관동로 노선 백지화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봉축일 등나누기 캠페인

선물용 팔모등 개발 보급

봉축위원회는 올해 부처님 오신날의 뜻을 모두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등 나누기 캠페인'을 벌인다.

봉축위는 3월 27일 조립식으로 된 선물용 팔모등(사진)을 개발해



조계종 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사진 가운데) 취임식이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4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불교 '변화와 도약' 지향

법장 스님, 조계종 31대 총무원장 취임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 취임식이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앞 마당에서 열렸다.

대구 지하철과 이라크 전쟁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취임식은 중정스님의 법어와 법장스님의 취임사,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지하스님과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법장스님은 취임사에서 "전 불자들이와 국민들의 참여와 변화를 통해 기쁨과 희망을 제시하는 한국불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며 "5대 종단 청사진을 통해 한국불교는 이제 변화와 도약이라는 미

래지향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법장스님이 제시한 5대 종단 청사진은 △종교종통 수호와 종풍진작을 통해 수행과 전법 중심의 종단 확립 △모든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원용종단 만들기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 △한국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목표로 한 미래지향적 종단운영기조 실행 △대중적인 신도활동 활성화 등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에서 "면면히 내려온 호국과 화합의 불교정신이 국민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함께 일할 참신한 일꾼 찾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세상을 보는 눈. 부처님과 중생을 이어주는 믿음의 가교 구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대불교가 내일을 이끌 인재들을 찾습니다.

■모집부서
수습기자 약간명

■응시자격

1. 불교신자
2.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3. 남자는 1975년 1월 1일 이후, 병역면제 남자 또는 여자는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졸 불자 대상...1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03년 4월 13일(월)
2. 접수방법
본사 인터넷신문인 부다뉴스(http://www.buddhanews.com) 또는 분사가 운영하는 불교정보센터인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에 접속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E-mail(cse0@buddhapia.com)로 보내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제출서류는 돌려드립니다)
4.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天馬行地 塵沙開

천마가 힘차게 나아가니
길이 원리 열리도다

世界的禪筆 天馬圖 구도적 예술세계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나라번영 민족화합 세계평화 불교중흥기원
제 8회 불교문화대제전

玉龍子 大吉祥圖 作品展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불국정토 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5월 7일 제1회 작품전을 거행한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제8회 대경상도 작품전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대경상도는 각급기관 美國대사관등 국내외 여러인연처와 각급단체 언론사등에 작품이 전시되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玉龍子스님 대경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취득한 독창성과 예술성 높은동경 국제적보편성을 인증받은 세계적 작품입니다.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 나부심을 봉축하는 대경상도전을 봉행함에 있어 무려 10여m에 이르는 天馬圖대작동 정성다하여 밤새워 조성한 작품들을 모아 장엄하고 환희 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념대법회 : 2003년 4월 10일(목)오전 11시
- 작품전 : 2003년 4월 10일~4월 14일(5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기념불교문화대제전 : 작품전 기간 중 불교전문문화행사
- 기념불교문화대강좌 : 작품전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 오후 1시까지 불교계 권위의 큰스님과 법사님의 특별대강좌 마련
- 불자연예인 공연 : 불자연예인단의 특별공연 ● 동참 불자님께 호신불 목걸이 경전 등 기념품 증정
- 장소 : 잠실 롯데호텔 3층 특설대법회장, 전시관



玉龍子대경상도회장 미국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 日本정부 특허청 특허청등록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玉龍子스님 대경상도는 전세계에 널리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 511-6210~5, 3443-9871~7, 3446-2158, 2185 FAX: 511-6216